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이 현 주*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202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직선택동기(내재적, 외재적) 수준과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이 높고, 자기격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직수행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5$). 그러나 외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z = 7.64, p < .001$). 이 때,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더해져 상당히 증가하였다. 셋째,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z = 4.24, p < .001$). 즉,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직접효과는 사라지고 자기격려를 매개함으로써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아교사양성 직전교육과정에서부터 교직선택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과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자기격려가 긍정적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제어(Key Words) : 교직선택동기(Teaching Entry Motivation)

자기격려(Self-Encouragement)

교직수행능력(Teaching Competence)

I. 서론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현황조사를 위하여 매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을 조사하여

* 배재대학교 교직부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education93@pcu.ac.kr)

발표하고 있다. 최근 장현진(2016)은 전국 1,200개 초·중등학교, 27,2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초·중·고 통틀어서 희망직업 4, 5위는 초등학교 및 중등 교사였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20위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여학생들의 경우 1, 2위는 초·중등 교사, 9위는 유아교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매스컴에서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할 이래 지속되는 현상으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보도하였다(연합뉴스, 2016, 12, 20).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업의 안정성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자신의 특성이 맞지 않을 때 교사라는 직업만큼 힘들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잘 가르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에 자신이 없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교직수행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낄 때 교직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은 크게 저하될 것이고 직업의 안정성을 쫓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당시의 선택 내용뿐만 아니라 선택 이후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물며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평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외적 환경과 같은 불만족 요인이 없다고 해서 심리적 만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외적 환경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불만은 없을지라도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고된 선행연구(이쌍철, 김혜영, 홍창남, 2012; 오수진, 장영숙, 2011)들에 따르면 교직선택동기에 따라서 교직 입문 후 직무만족도나 교사효능감, 직무능력인식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즉 내재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하는 교사가 외재적 동기로 선택하는 교사들에 비해 직무만족도나 직무능력에서 더 우수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동기와 함께 외재적 동기 역시 교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쌍철 외, 2012)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동기로서 직업의 안정성은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까지 기여하는 요인은 아닐 수 있으므로 성취감 같은 내적 요인들은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유아교사는 이직률과 퇴직률이 빈번한 직업 중 하나이기도하며 교사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직업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유아들의 발달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화연, 2015). 따라서 평소 유아교사가 갖고 있던 교직선택동기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이나 방법,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직입문 전 그들의 교직선택동기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직업선택동기가 분명하면 직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충분히 된 것이므로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미림, 탁수연, 2010). 또한 교직선택동기가

뚜렷한 예비교사는 미래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과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런 교사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는 등 미래의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대비함으로써 현실과 이상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직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교직선택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부딪힐 수 있는 직업적 좌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안정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 직무수행이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조남근, 양윤중, 1998)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직선택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향후 그들의 교직수행 능력이나 교직에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에 따라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철, 정혜승, 2016; 박희영, 2014)들을 통해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교사효능감 수준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자기격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상황의 개선 및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지속시킨다(Ferguson, 2003)거나, 자기격려가 보여주는 수행능력과 수행지속성, 도전적 과업 시도경향성의 증가 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자(이선희, 곽정현, 2016; 조영주, 박익열, 2015; Rathvon, 1990; Van Hecke & Tracy, 1987)들의 주장은 자기격려가 충분히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사용하는 자기격려가 교직선택동기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교직선택동기 수준에 따라 교직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한편, 직업적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기격려가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갖는 교직선택동기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상담전략을 구사해야 할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직전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격려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문제 1. 교직선택동기(내재적, 외재적)수준과 자기격려 수준에 따라 교직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직선택동기(내재적, 외재적)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매개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일의 방향성과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등 개인적 차이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 일 자체가 갖는 본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혹은 일로 인해 파생되는 부수적 결과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과제수행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에의 헌신, 직무수행, 직무만족도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구신실, 2015; 오수진, 장영숙, 2011; 이쌍철 외, 2012; 최병임, 홍창남, 2013)들은 내재적·능동적인 동기로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에 외재적이거나 수동적인 동기로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교사헌신도, 직무능력, 직무만족도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직선택동기의 중요성은 비단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서만 발견되는 양상이 아니다.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철과 정혜승(2016)의 결과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능동적인 교직선택동기가 뒷받침된다면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창의성, 유아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임으로써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등이 교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남근과 양윤중(1998) 역시 예비교사들이 능동적 교직선택동기를 가진 경우에 직무수행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Pintrich(1990)는 교사양성을 위한 직전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의 참여수준과 참여의 질 역시 동기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Sinclair et al.(2006)는 특히 교직과정 참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선택동기(specific entry motivations)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교직과정 이수 중 중도탈락하는 잠재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교사교육이나 교육실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가르치기 쉬운 직업으로서 교직을 선택한 사람보다 진실한 가르침의 열망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에 교직에의 동기가 더욱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직선택동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으며, 특히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현장실습을 하게 되면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직수행의 용이성을 주요 교직선택동기로 인식했다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는 동기로 바뀐 경우 교직수행의 지속성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직을 떠나게 되기 더 쉽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직선택동기는 교직수행의 지속성과 연관될 수 있으며, 동기의 소재와 질은 교직수행의 원동력(impetus)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기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로서 내적 동기는 어떤 과제나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깊이 관여하게 되는 주된 원인을 개인의 믿음, 가치, 인식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외적 동기는 어떤 과제나 활동의 원동력을 외부 다른 힘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동기의 질에 따라 분류했을 때, 동기는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수 있다. 적응적 동기는 어떤 과제나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장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적응적 동기는 피상적인 참여나 활동에의 이탈을 촉진한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동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는 아는 것은 직전과 현직에서의 교사재직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직선택동기는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교사양성을 위한 직전교육과정을 중도탈락 없이 잘 이수할 수 있는지 혹은 직전교육과정 참여의 질은 어떠한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자기격려와 교직수행능력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을 할 때, 혹은 지쳐서 좌절할 때 누군가의 격려는 큰 힘이 된다. Dinkmeyer와 Losoncy(1996)는 공적인 관계나 사적인 관계(professional and personal relationship) 모두에게 있어서 격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격려가 바람직한 에너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장이다. 선행연구자(박지연, 2012; Guéguen, Martin, & Rio Andrea, 2015)들은 가까이 있는 부모나 동료, 학교의 선생님 등 나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하는 언어적인 강화, 즉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는 말의 힘이 갖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격려가 갖는 효과를 보고한 박지연(2012)은 아동들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부모, 교사, 동료 등 타인에 의한 격려는 외부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하는 사람의 유무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좌우된다. 따라서 자기 내부에 소재를 둘 수 있는 자기격려는 자기 스스로 긍정적 기대를 하고 격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Dinkmeyer와 Losoncy(1996; 심복심, 2012, 재인용)가 다양한 언어적 강화 유형들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타인격려와 자기격려 모두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심리기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격려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보고된 국내 연구(이선희,곽정현, 2016; 조영주, 박익열, 2015)들에 따르면 자기격려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수행의 증가와 관련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의 한 연구(Depape, Hakim-Larson, Voelker, Page, & Jackson, 2006)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나는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혼잣말(positive self-talk)이 자기인식과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는 자기격려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언어적 강화

가 갖는 교육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3.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자기격려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도록 끊임없이 격려함으로써 무엇이든 자기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Dinkmeyer와 Eckstein(1996, 노안영, 정민, 2007, 재인용)는 사람들이 자기 격려됨에 따라 타인의 의견에 잘 동의하게 되며, 타인에게 과시할 필요를 덜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즉 자기격려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를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함은 물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인의 신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적 기제이다.

장해순과 이만제(2017)에 따르면 자기격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발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활동에서 발표 불안감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자기격려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표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교직선택동기에 따라 교직에의 헌신, 직무수행, 직무만족도 등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자(구신실, 2015; 이쌍철 외, 2012)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와 학부모 등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교직을 수행해야 하는 개인이 자기격려를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교직선택동기가 어떤 것이든 자신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유아예비교사의 교직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D시 소재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학년~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5월 넷째 주부터 일주일간 수업시간 및 학과사무실을 통해 배부된 설문지는 220부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	여
사례 수(퍼센트)	49(24.3)	65(32.2)	36(17.8)	52(25.7)	9(4.5)	193(95.5)
총계	202(100)					

2. 연구도구

1) 교직선택동기

교직선택동기는 최은숙(2001)이 선행연구자(나종남, 1987; 정순현, 1998)들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총 15문항으로서 적성, 사회적 존경, 우발적 동기, 안정성, 자아실현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동기의 소재지에 따라 적성과 자아실현 하위요인을 내재적 교직선택동기로, 사회적 존경, 우발적 동기, 안정성을 외재적 교직선택동기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측정도구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제작되어 있어 일부 문항을 예비유아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학생→유아). 측정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동기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이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이므로 문항에서 학생을 지칭하는 경우 유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내적 신뢰도는 최은숙의 연구에서는 적성 Cronbach $\alpha=.87$, 사회적 존경 Cronbach $\alpha=.72$, 우발적 동기 Cronbach $\alpha=.67$, 안정성 Cronbach $\alpha=.70$, 자아실현 Cronbach $\alpha=.7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신뢰도 계수는 내재적 동기의 Cronbach $\alpha=.86$ (6문항), 외재적 동기의 Cronbach $\alpha=.71$ (9문항)이었다.

2) 자기격려

자기격려는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한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encouragement scale) 가운데 자기격려 척도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Adler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으며, 세 가지 요인 즉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격려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며, 각 10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의 5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격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노안영과 정민(2007)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인지적 자기격려, 행동적 자기격려, 정서적 자기격려 각각 Cronbach's α =.84, .87,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90, .87,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 Cronbach's α =.95로 나타났다.

3) 교직수행능력

기존 교직수행능력 측정도구들 가운데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수행능력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된 측정도구가 없는 관계로 장정은(2007)이 개발한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교직수행능력검사(Practical Efficacy Scale for Science Education Majors: PITSE)’를 사용하여 교직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측정도구에는 과학 교과 교직수행능력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11번 문항, ‘나는 실험 결과의 오차에 대해 잘 설명해줄 수 있다’의 경우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총 19문항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교수활동, 행정업무, 상호작용, 자기계발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직수행능력의 하위요인별 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였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직선택동기(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 자기격려 수준에 따라 교직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3-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모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Sobel의 z-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격려를 매개할 때 교직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선행연구(이선희·곽정현, 2016; Depape et al., 2006)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들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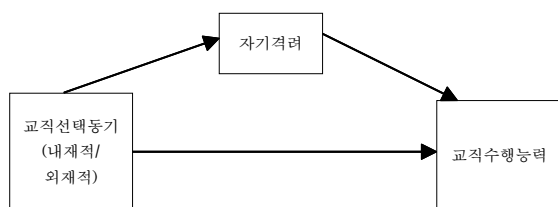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부분매개효과)



그림 2. 연구모형2(완전매개효과)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직선택동기와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지각된 교직수행능력의 차이검증

표 2.

교직선택동기와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의 차이검증

독립변인	수준	수행능력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p
내재적 동기	상	75.97	1751.02	1	1751.02	36.61	.000
	하	69.49					
외재적 동기	상	72.41	17.05	1	17.05	.35	.551
	하	73.05					
자기격려	상	76.82	2786.15	1	2786.15	58.26	.000
	하	68.64					
내재적동기* 외재적동기			26.03	1	26.03	.54	.461
내재적동기* 자기격려			55.80	1	55.80	1.16	.281
외재적동기*자기격려			.38	1	.38	.01	.929
내재적동기 * 외재적동기*자기격려			2.736E-5	1	2.736E-5	.00	.999

교직선택동기 및 자기격려의 수준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집단,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재적 동기 수준은 평균치 22.54, 외재적 동기 수준은 평균치 28.67, 자기격려는 평균치 118.27을 기준으로 집단(상, 하) 구분을 하였다. 세 독립변인의 상, 하 집단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내재적 교직선택동기($F=36.61$, $p<.001$)와 자기격려($F=58.26$, $p<.001$)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외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35$, $p>.05$), 각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각 단계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3.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F
1	자기격려	내재적 동기	2.23	.21	.60	10.58***	.36	111.90***
2	교직수행능력	내재적 동기	1.62	.12	.68	12.98***	.46	168.47***
3	교직수행능력	내재적 동기	.89	.13	.37	6.84***	.62	164.33***
		자기격려	.33	.04	.51	9.35***		

*** $p < .001$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독립변인인 내재적 교직선택동기는 매개변인인 자기격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 = .60, p < .001$), 그 설명력은 36%였다. 즉, 내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격려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인 내재적 교직선택동기는 종속변인인 교직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 = .68, p < .001$), 교직수행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은 46%였다. 베타값의 방향성으로 볼 때, 내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교직수행능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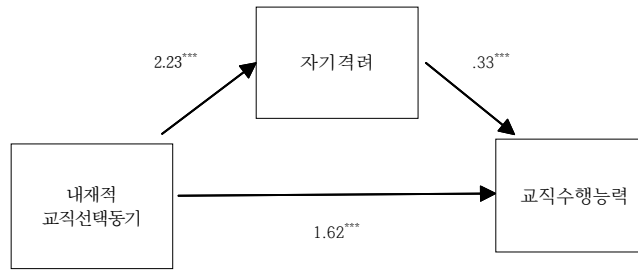
셋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베타 값이 감소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야 하고, 매개변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여야 한다. 즉, 독립변인→종속변인 경로의 베타 값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의 독립변인의 베타 값이 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beta = .68 \rightarrow .51,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격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beta = .51, p < .001$).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자기격려가 미치는 효과는 6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전체효과는 직접효과 162%와 간접효과(회귀계수 $a \times b$) 74%가 더해져 236%로 증가하였다(표 4 참고). 표 3의 베타 값을 기초로 하여 매개변인인 자기격려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 변인 간 경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표 4.
변인 간 경로의 효과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obel test
내재적 교직선택동기→교직수행능력	1.62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자기격려→교직수행능력		.74	2.36	$z=7.64^{***}$

*** $p < .001$



*** $p < .001$

그림 3. 내재적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자기격려의 부분매개효과

3.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격려는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매개변인인 자기격려에 대한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나($\beta = .29, p < .001$), 그 영향력은 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수행능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나($\beta = .18, p < .05$), 그 영향력은 3%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사라지고($\beta = -.04, p > .05$)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beta = .74, p < .001$), 두 변인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5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격려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수행능력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은 34%였으나,

자기격려를 매개할 때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사라졌다. 따라서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전체효과는 간접효과(회귀계수 $a \times b$) 42%가 더해져 76%로 증가하였다(표 6 참고). 그리고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갖는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Sobel Test)을 실시 한 결과 z값이 절대값 1.96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4.24, p<.001$).

표 5.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F
1	자기격려	외재적 동기	.88	.20	.29	4.32***	.09	18.63***
2	교직수행능력	외재적 동기	.34	.14	.18	2.54*	.03	6.44*
3	교직수행능력	외재적 동기	-.08	.10	-.04	-.80	.54	114.81***
		자기격려	.48	.03	.74	1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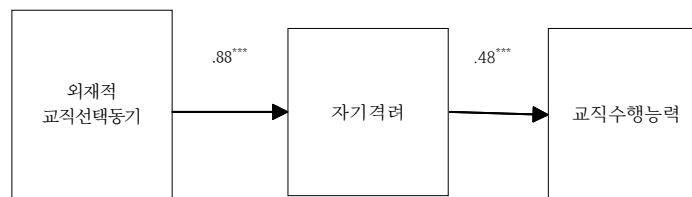
* $p<.05$, *** $p<.001$

표 6.

변인 간 경로의 효과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obel test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교직수행능력	.34		.76	$z=4.24$ ***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자기격려→교직수행능력		.42		

*** $p<.001$



*** $p<.001$

그림 4. 외재적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자기격려의 완전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직선택동기와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 간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 때 교직선택동기는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교직선택동기 유형과 교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선행연구와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선택동기와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내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격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직수행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외재적 교직선택동기 수준에 따른 교직수행능력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재적, 능동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에의 헌신, 직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자(구신실, 2015; 오수진, 장영숙, 2011; 이쌍철 외, 2012; 최병임, 홍창남, 2013)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교직선택동기는 교직과정 참여의 질과 관련될 수 있음(Sinclair et al., 2006)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격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교직수행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동기적 혼잣말(motivational self-talk)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행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Hatzigeorgiadis et al.(200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내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내재적 선택동기의 직접적인 설명력은 36%였으나 자기격려의 간접효과까지 더해짐으로써 두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62%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내재적 교직선택동기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자기격려를 매개로 하였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교직수행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진 결과이다.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나는...을 잘해’ 등과 같은 자기격려 성 혼잣말을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신감과 자긍심,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친구를 사귀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http://au.reachout.com/what-is-self-talk>, 2017.6.13.인출). 따라서 자기격려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수행의 증가와 관련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이선희,곽정현, 2016; 조영주, 박익열, 2015)거나,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Hatzigeorgiadis, et al., 2009; Kolovelonis, Goudas, & Dermizaki, 2011)고 보고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내재적 동기로 교직을 선택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기격려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불안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직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비교사로서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교직수행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외재적 교직선택동기가 자기격려를 매개하였을 때, 교직수행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라지고 자기격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재적 교직선택동기만의 직접효과보다 자기격려를 매개로 하였을 때 두 변인의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전체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격려는 자기인식과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Depape 등(2006)과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수행의 증가와 관련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한 이선희,곽정현(2016), 조영주, 박익열(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격려가 불안수준을 낮춘다(강경호, 홍혜영, 2012)거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발표불안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 장해순, 이만제(2017)의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기격려를 매개하는 유아예비교사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여 불안수준을 낮추게 됨으로써 자신의 교직수행능력을 높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격려는 미래지향적인 동기이며, 긍정적 자아개념에 기초한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기격려가 외재적 교직선택동기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과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예비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는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결정되는 요인이지만 직전교육과정 참여의 질뿐만 아니라 교직에 입문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교사의 교직생활과 교직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므로 교육과정 운영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인간의 생애발달 관점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유아교사에게 기대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인간적 자질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이나 기술보다 가치관, 자아개념 등 심리적 요인이 교육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외재적인 동기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라도 유아교사로서의 직업적 가치와 사명감 등 유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과 및 담임교수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직 유아교사가 된 선배초청 특강을 통해 자신의 교직선택동기가 미래의 교직수행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내재적 동기가 직무수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적 영화를 추천하거나 같이 감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교직선택동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격려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낮은 사회적 지위, 불만족스러운 직업환경 등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서 교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연구(위수경, 2006) 결과가 있다. 즉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부정적인 외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로서 교직을 계속 희망하는 것은 유아교사가 담당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긍정적 정서의 힘으로 생각된다. 자

기격려 차원에서 ‘나는 잘 할 수 있어. 반드시 해 낼 거야.’ 이와 같은 긍정적 혼잣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 혹은 해소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예비교사들에게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규칙적으로 자신에게 들려주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현직 유아교사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온 4학년과 다른 학년 간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간 능력의 차이를 전제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모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현직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수행능력 간에 관계에서도 자기격려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학년별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비교해 볼 것을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경호, 홍혜영(2012).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7), 51-77.
- 구신실(2015). 특수학교 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직헌신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7(4), 189-210.
- 권보영(2013). 영어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 및 효능감 수준 분석: 국어 및 수학교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7(1), 1-24.
- 김경철, 정혜승(2016).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교직적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1(6), 135-153.
- 나종남(1987). 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정민(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 박지연(2012). 부모연계 격려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영(2014).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적성 및 교직선택동기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복심(2012).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분노 및 공격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와 타인격려의 완충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2016, 12, 20). 학생 희망직업 1위 ‘교사’...보안전문가 등 IT직종 약진.<http://www.yonhapnews>.

- co.kr에서 2017년 6월 6일 인출.
- 오수진, 장영숙(2011). 공립유치원 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 및 직무능력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4.
- 위수경(2006). 유아교사 직업과 교사 생활에 대한연구. *육아지원연구*, 1(1), 95-116.
- 유미림, 탁수연(2010). 예비 영.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만족기대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0(1), 127-141.
- 이선희,곽정현(2016). 생활체육 참여 노인의 자기격려가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지속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93-107.
-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직무수행 및 교사만족에 주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5(4), 239-260.
- 장정은(2007).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교직수행능력검사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 이만제(2017). 대학생의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스피치 불안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1), 63-83.
- 장현진(2016). 2016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IV): 진로교육현황조사(2016).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순현(1998). 초등학교 여교사의 교직관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 양윤중(1998). 교원양성배경·교직선택동기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4(2), 1-16.
- 조영주, 박익열(2015). 무용수행의 자기격려 인식과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54(5), 651-662.
- 최병임, 홍창남(2013). 중등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사헌신의 관계. *지방교육경영*, 17(1), 21-43.
- 최은숙(2001). 중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직업 만족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수연, 유미림(2010). 유치원교사의 교직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한국보육학회지*, 10(4), 147-166.
- 홍화연(2015).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교사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Depape, A-M. R., Hakim-Larson, J., Voelker, S., Page, S., & Jackson, D. L.(2006). Self-talk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8(3), 250-260.

- Dinkmeyer, D., & Losoncy, L.(1996). *The skills of encouragement*. Delray Beach, FL: St. Lucie Press.
- Dinkmeyer, D., & Eckstein, D.(1996). *Leadership by encouragement*. New York: St. Luice Press.
- Ferguson, E. D.(2003). Social processes, personal goals, and their intertwining: Their importance in Adleria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9(2), 136-144.
- Guéguen, N., Martin, A., & Rio Andrea, C.(2015). “I am sure you’ ll succeed” : When a teacher’ s verbal encouragement of success increases children’ s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and Motivation*, 52, 54-59.
- Hatzigeorgiadis, A., Zourbanos, N., Mpoupaki, S., & Theodorakis, Y.(2009). Mechanisms underlying the self-talk-performance relationship: The effects of motivational self-talk on self-confidence and anxiet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1), 186-192.
- Kolovelonis, A., Goudas, M., & Dermitzaki, I.(2011).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and motivational self-talk on students’ motor task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2), 153-158.
- Oxford, R. L.(1999). Anxiety and the language learner. In Arnold, J. (2005). *Affect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4th). 58-67.
- Pintrich, P. R.(1990). Implications of the psychological research on student learning and college teaching for teacher education. In R. Houston(Ed.), *The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pp. 826-857. New York: Macmillan.
- Rathvon, N. W.(1990). The effects of encouragement on off-task behavior and academic productivity. *Elementary School Guidance Counseling*, 24, 189-199.
- Sinclair, C., Dowson, M., & Mcinerney, D. M.(2006). Motivations to teach: Psychometric perspectives across the first semester of teacher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108(6), 1132-1154.
- Van Hecke, M., & Tracy, R. J.(1987). The influence of adult encouragement on children’s persistence. *Child Study Journal*, 17(4), 251-268.

Abstract

Self-Encourage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ntry Motivation and Teaching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Lee, Hyun Ju

(Devison of Teacher Training Course, Pai Cha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ntry motivation and teaching competence by examining the role of self-encouragement as a mediator. Data were collected from 202 students at university(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Daeje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ing competence level by self-encouragement and teaching entry motivation styles. Second, It was also found that students with intrinsic motivation conceived higher teaching competence than others. The more students self-encouraged, the higher teaching competence they conceiv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elf-encourage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teaching entry motivation and teaching competence. Also, it was analyzed that the self-encourageme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insic teaching entry motivation and teaching competence. Final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f the teaching entry motivation styles and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encouragement.